

신설학급 150개 넘는데 교사 겨우 40명 배치 광주 교원 확보 '비상'

16개 시·도 중 '과밀 학급' 두번째 중·고 학급당 학생수 40명 넘겨

새 학기를 앞두고 광주지역 중·고 교에 교원확보 비상이 걸렸다. 신설 학교는 늘어난 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 동결 방침에 따라 중등교원(중·고교)이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수가 증가하는 등 '과밀 교실'이 양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광주에 오는 3월 개교하는 초·중·고는 모두 13개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학생을 받는 초등학교는 총 70개 이상의 학급이 신설되며, 1학년 신입생만 모집하는 신설 중·고교는 모두 50개 안팎의 학급으로 꾸러질 예정이다.

또 지난 2007년 개교한 대좌중 등 3

개교는 올해 3학년 학급이, 2008년에 개교한 상일여고는 2학년 학급이 새로 편성됨에 따라 추가 교원 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교 35명과 중등교원 198명 등 모두 233명의 증원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으나, 초등 25명, 중등 15명만 지정되면서 교원 부족 사태를 맞고 있다.

교사 부족으로 올해 광주지역 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지난해 39.5명에서 각각 40.5명과 40.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8년 기준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교육청 가운데 중학교는

인천(41명)에 이어 두 번째, 고등학교도 울산(4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나머지 시·도 교육청은 중·고교 모두 38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전년보다 7천 명의 학생수가 줄어드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는 35명에서 33명으로 줄어들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평균 29.2명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특히 올 3월 수완지구에 들어서는 모 고교는 12학급으로 계획했으나, 교원 동결 방침에 따른 교원수 감소로 8학급으로 축소되는 등 학교 행정에도 혼선이 일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부족으로 광주의 학급당 학생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이라면서 "학교당 학급 배치 등 학교 행정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원수 배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고로쇠 수액 채취 시작
올해 전남지역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백양고로쇠협회 회원들이 28일 장성군 북하면 가인마을 백암산 자락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고 있다. 고로쇠 수액은 18ㄴ 한 통에 5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초·중·고 14곳 문 열고 16곳 문 닫아

울 광주·전남지역

올해 광주·전남에서 일선 학교 14곳이 문을 열고, 16곳이 사라진다.

28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는 광산구 수완지구 고실초등학교 등 13곳이 신설되는 반면 전남은 나주 금천동초등학교 등 16곳이 폐교된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광양 광영교만 신설된다.

광주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진 수완지구에 오는 3월 초등학교 5곳(고실초, 장덕초, 큰별초, 산정초, 하남초)과 중학교 2곳(성덕중, 수완중), 고등학교 2곳(장덕고, 수완고) 등 9곳이 문을 연다.

이밖에도 남구와 북구 등에도 초등학교 1곳(진제초), 중학교 2곳(진남중, 용두중), 고교 1곳(문정여고) 등 4곳이 개교한다. 기존 하남초등학교는 신설되는 경암초교와 합쳐지며 동구 무등중과 지원중도 학교 재배치에 따라 무등중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은 초등학교 140곳, 중학교 84곳, 고등학교 65곳 등 모두 289곳으로 늘었다.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전남지역은 나주금천동초교가 금천초교에, 고흥 금산남초교가 금산초교에 통합되는 등 초등학교 14곳이 문을 닫는다.

중학교는 광양 옥룡중이 광양중과 광양여중에, 해남 계곡중은 해남중

과 해남제일중 등으로 분리, 통합된다. 해남 영명중은 우수영중학교 영명분교장으로 격하, 운영되는 등 3곳이 폐교됐다. 고등학교는 광양 광영고가 신설돼 153곳에서 154곳으로 늘었다.

전남지역은 초등학교 447곳, 중학교 247곳, 고교 154곳 등 848곳으로 16곳이 줄었다.

이와는 별도로 특성화고 전환으로 전남지역 4개 전문계고의 교명도 변경돼 구례농고가 전남자연과학고로, 봉래중고가 나로고로, 신북전자공고가 영암전자과학고로, 함평월야중고가 전남보전고로 바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50%까지 허용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되고 입학요건도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주부터 시

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에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까지는 '외국인'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뿐 아니라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추가된다.

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

도 '외국 거주기간 3년 이상인 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학교 졸업 후 학력인정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46개교의 외국인학교가 설립, 운영 중이며,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의 외국인학교 1곳에서 95명이 재학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4분
해질 17시 57분

달돋이 08시 55분
달질 20시 50분

비야 반갑다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내리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리고 비	4/10℃
목포	흐리고 비	4/9℃
여수	흐리고 비	5/8℃
완도	흐리고 비	4/9℃
구례	흐리고 비	0/9℃
해남	흐리고 비	1/9℃
장흥	흐리고 비	0/9℃
고흥	흐리고 비	2/10℃
순천	흐리고 비	2/9℃
영광	흐리고 비	2/9℃
진도	흐리고 비	3/9℃
전주	흐리고 비	1/10℃
남원	흐리고 비	-3/10℃
옥산도	흐리고 비	5/8℃

비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북동	0.5~1.5m	목포 03:46	09:04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북동	1.0~2.5m	16:15	21:3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5m	여수 10:57	04:29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북동	1.5~3.0m	23:08	17:02

◇주간날씨 기상인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30(금)	31(토)	2/1(일)	2(월)	3(화)	4(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6/10	2/8	-1/9	-1/8	1/7	0/9

모처럼 눈 아닌 '단비'

광주·전남 5~30mm ... 해갈에는 부족

광주·전남지역에 29~30일 '단비'가 내리겠지만 오랜 가뭄을 해갈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광주·전남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강수확률 80~100%)가 내릴 것"이라며 "강수량은 5~30mm 안팎이며, 이번 비로 가뭄 해

소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28일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7mm ▲목포 10mm ▲순천 10mm ▲완도 10mm 안팎이다.

29일 시작된 비는 30일에도 광주·전남지역에 5~40mm 내외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BK21' 광주·전남 2개 사업팀 늘었다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 광주·전남 5개 대학의 4개 사업팀(단)이 탈락하고, 6개 팀이 새로 지정돼 총 지원 대상 사업은 2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총 사업팀 수는 각각 2개, 1개 늘어났으며 순천대는 1개가 줄었다. 조선대와 목포대는 현상 유지 수준이었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발표한 BK21사업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원받고 있는 36개 대학 70개 사업팀(단)이 무더기로 탈락해 새로운 사업팀으로

교체됐다.

BK21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5개 대학 총 사업팀은 2008년 기준 44개였으나 이번 중간평가(4개 탈락, 6개 추가)로 인해 46개로 증가했다.

이중 전남대는 공학 분야에서 2개 사업팀이 떨어진 반면 이학, 공학, 사회 등의 분야에서 4개 사업팀이 새로 선정돼 결과적으로 지원 대상팀이 2개 더 늘어났다. 현재 전남대의 BK21사업은 모두 29개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이학 분야에서 1개 사업팀이 신규 지원대상으로 추가됐다.

/채희중기자 chae@

천마(天馬)는 '아름답게 떨어져 마비가 되는 증상을 치료했다' 하여 이름 붙여진 기능성 건강식품으로써, 우주군이 중립 육성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마(天馬)

기능성 건강식품

천마(天馬)는 '아름답게 떨어져 마비가 되는 증상을 치료했다' 하여 이름 붙여진 기능성 건강식품으로써, 우주군이 중립 육성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